

# V리그 내일 개막... 시페퍼스 “매운 배구로 10승 해낼 것”

### 스피드 배구 세트 이고은·브라질 득점왕 리드·몽골 출신 어르형 주축 하혜진·이한비 등 잇단 부상 출발부터 험로...25일 흥국생명과의 첫 경기

“10승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페퍼 배구’를 선보이겠습니다.”  
광주 AI페퍼스 김형실 감독이 2022-2023 프로배구 정규리그 개막(22일)을 앞두고 올시즌 각오를 다졌다. 페퍼스는 오는 25일 흥국생명과 2022-2023 프로배구 정규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광주 홈 첫 경기는 28일 흥국생명전이다.  
지난해 3승(28패)을 거둔 AI페퍼스의 올해 목표는 10승.  
하지만 올해 두번째 시즌을 앞두고 AI페퍼스는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미들 블로커(센터) 하혜진이 어깨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올시즌 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아웃사이드 히터(레프트) 이한비도 국가 대표팀에 차출돼 우측 손목 근육파열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들블로커(센터) 서재원은 브로킹 과정에서 새끼손가락이 골절됐다. 아웃사이드 히터 박은서, 지민경도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팀 전체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전력차질을 막기 위해 선수들에게 제발 부상당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페퍼스 배구를 관전하는 즐거움은 적지 않다.  
올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수혈한 세트 이고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이고은은 2013~2014시즌 전체 3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프로 데뷔해 9시즌을 뛰었다. 9억 9000만원(연봉 3억원, 옵션 3000만원)에 페퍼스 유니폼을 입은 이고은은 김형실 감독이 추구하는 스피드 배구의 중심축이다.  
이고은과 페퍼스 동료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순간, 페퍼스 경기력도 상승할 수 있다.  
페퍼는 이고은이 빠른 토스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 1순위로 니아 리드를 택했다. 어포짓 스파이커(라이트)인 리드는 범실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강점이다. 리드는 신장 189cm로, 2021-2022 시즌 브라



지난 19일 열린 도드림 2022-2023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페퍼저축은행 니아 리드(왼쪽)와 이고은이 새 시즌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질 리그에서 득점 1위를 기록한 주 득점원이다. 이고은과 리드, 둘의 조합이 어떤 공격 컬러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세트 구술은 미들블로커로 변신, 공격의 중심축에 선다. 이전은 ‘세베로’(서바+리베로)로 전향했다. 차세대 국가대표로 주목받는 몽골 출신 미들 블

로커 어르형도 데뷔한다.  
어르형은 9월 5일 열린 2022-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페퍼저축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194.5cm로 2022-2023시즌 여자부 국내 최장신 선수인 어르형은 새 얼굴을 기다리는 V리그에 활력소다.  
김형실 감독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선수들이 달려야할 정도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2022-2023 프로배구 정규리그가 22일 대한항공-KB손해보험(남자부), 현대건설-한국도로공사(여자부)의 대결로 6개월 장정의 첫발을 떤다. 남자부 7개, 여자부 7개 등 총 14개 구단은 내년 3월까지 팀당 6경기씩 6라운드를 치러 ‘볼 배구’에 출전할 팀을 가린다.  
이번 시즌 비디오 판독에는 손이 네트를 넘어가는지를 살피는 오버넷이 추가됐다. 비디오 판독 항목은 오버넷에 불의 인-아웃, 터치아웃, 네트 터치, 안테나 반칙, 라인 반칙, 수비 성공 실패, 후위 경기자 반칙, 리베로 반칙, 포 히트, 시차가 있는 더블 콘택트를 합쳐 11개로 늘어났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시각장애 육상 남매 김천천·김지혜 ‘동반 금’

### 장애인체전 나란히 한국신기록 광주 방미주·이승훈 등 잇단 금 전남 여자 육상 강수빈 2관왕

광주 시각장애 남매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땀.  
김천천은 20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창던지기 F13(시각장애) 부문에서 30.17m로 1위에 올랐다.  
김천천의 여동생 김지혜도 같은 부문에서 17.52m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김천천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 원반던지기 F13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바 있어 남매가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여자 창던지기 F12(시각장애)에 출전한 방미주도 18.66m의 기록으로 한국신기록을 달성했다.  
이승훈(가이드러너 이동재)은 남자 400mB T11(시각장애)에서 1분2초3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하은은 여자 400m T12(시각장애)에서 1분18초4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훈과 김하은은 이번 대회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역도 남자 -60kg 지적장애 경기에 출전한 박종선은 스퀘트에서 147kg을 들어 올려 한국신기록을 수립, 금메달을 획득했다.



시각장애 육상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한 김지혜(왼쪽) 김천천(오른쪽) 남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론볼 종목에서는 이경숙이 여자 단식 B7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혼성 단식 B4에 출전한 황만두 또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광주 선수단은 20일 금13·은18·동13로 종합순위 9위에 올랐다.  
전남 선수단에서는 강수빈이 2관왕에 올랐다. 강수빈은 여자 200m T20(동호인부) 1분25초로 금메달을 추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하성환은 육상 필드 남자 F12 원반던지기에서 33.74m로 1위를 차지했다. 이민재는 남자 F55 원

반던지기 23.88m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론볼 남자 B6 3인조 준결승에서 개최지 울산을 4-0으로 따돌리고 단체전 첫 결승에 올랐다.  
역도에서 유병상은 데드리프트(187kg), 파워리프트 종합(368kg), 김금희는 역도 지체경기 -61kg에서 62kg를 들어올려 은메달을 추가했다.  
최길라는 여자 수영 자유형 S12(시각) 3분40초 41로 은메달을 보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 화합 잔치

### 광주시장배 오늘 개막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들의 화합잔치인 광주광역시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열린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21~30일 광주진원국제테니스장 및 보조구장에서 ‘제18회 광주광역시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개 부문에서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겨룬다. 21일에는 시니어부(60세 이상) 경기가 열리고 29일은 단체전, 여자우승자부, 여자신인부가 진행된다. 30일은 지도자·동호인부, 매직테니스부(초등생), 테러이부(초보자) 경기를 갖는다.  
모든 경기종목은 대한테니스협회와 광주·전남테니스협회 경기 규칙 및 셀프 저지 룰이 적용된다.  
예선 조별리그 각 조 1, 2위가 본선에 진출하며,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 방식은

5:5 타이브레이크 노 애드시스템 방식이 적용된다. 각 부문 1-3위 팀에게는 시상과 시상품을 증정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주어진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 광주시와 대한테니스협회 후원을 받아 이 대회를 18년간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성남 광주테니스협회장은 “참가 선수단 모두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 동호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구례군청 여자씨름 엄하진 시즌 ‘4관왕’

### 김홍도장사씨름 국화급 우승

여자씨름의 간판 엄하진(구례군청·사진)이 올 시즌 4관왕에 올랐다.  
엄하진은 20일 경기도 안산시 울림파크기념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안산 김홍도장사씨름대회 및 제2회 안산 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 국화급(70kg 이하) 결승에서 김다혜(안산시청)를 2-0으로 꺾고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엄하진은 서민희(거제시청)와 만난 4강부터 결승까지 한판도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거제 대회와 단오 대회, 추석 대회를 제패한 엄하진은 시즌 4관왕을 달성하며 개인 통산 8번째 장사 꽃가마를 탔다.  
양윤서(영동군청)는 20일 대화장사(60kg 이하) 결정전(3전 2승)에서 이연우(화성시청)를 2-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이로써 양윤서는 올 시즌 처음이자 개인 통산 17번째 대화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이진 무궁화급(80kg 이하) 결승전에선 이다현(거제시청)이 신유리를 2-1로 꺾고 올 시즌 6번



짜이자 개인 통산 16번째 무궁화장사를 차지했다. 이다현은 같은 날 열린 여자부 단체전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매킬로이 “김주형, 믿기지 않는 성장세”

### 칭찬·조언 등 각별한 애정 드러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실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뜨는 신예 김주형(20)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화제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의 퐁카리골프클럽에서 열리는 PGA투어 더CJ컵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한국시간) 공식 기자회견에서 매킬로이는 김주형을 입안히 마르도록 칭찬했다.  
“김주형이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성장세는 믿기지 않는다”고 말문을 연 매킬로이는 “스코티시 오픈 준우승과 원팀 챔피언십 우승으로 모든 사람이 김주형의 재능에 주목하게 했다”고 찬사를 보냈다.  
매킬로이는 “김주형과 함께 9홀 연습 라운드를 했는데, 김주형의 플레이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면서 “프레지던트컵도 열심히 봤다. 김주형의 경기는 정말 흥미진진했고 훌륭했다. 프레지던트컵 덕분에 전 세계에 김주형의 팬이 많은 것 같지 않나?”고 덧붙였다.  
매킬로이는 칭찬에만 그치지 않고 애정이 어린 충고도 곁들였다.  
매킬로이는 “어린 나이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은 건 시간 관리”라면서 “(성공하면) 여러 곳에서 끌어당긴다. 너는 벌써 스폰서가 많다. 그런 내가 그만큼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연습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매킬로이는 “지금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왜 성공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는 뛰어난 경기력뿐 아니라 LIV 골프와 맞서는 PGA투어 선수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PGA투어에서는 ‘실세’로 인정받는다. 갓 PGA투어에서 데뷔한 김주형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 셈이다. 매킬로이와 김주형, 그리고 리키 파울러는 더CJ컵 1, 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블랙 아담
- 2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파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3관 캐릭터, 정직한 후보2
- 4관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파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역일학교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블랙 아담
- 9관 블랙 아담
- 7관 새캐틀 캐릭터, 스마일, 나를 죽여줘
- 8관 새캐틀 오픈: 천사의 탄생, 미혹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④  
**몰토 콰르텟**  
일시 : 2022. 11. 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